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9호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 제25회 전국소년체전

울산서 열리는 소년-장애학생 체전, 기록물로 남긴다

허광무 연합뉴스기자

제주스포츠클럽

“너 낳고 부모가 행복했겠다” 초등학생 선수에 폭언한 테니스코치 징역형

양다훈 세계일보기자

‘신고 의무’ 명시한 최속헌법 어거

평택수영연맹, 부회장 비리 신고에 제보자 계약 해지

이준희 한겨레기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이끄는 최동호 소장 “스포츠인권, 아직 갈 길 멀어”

이석무 이데일리기자

여성 선수 결혼이 은퇴로 이어지는 스포츠계

출산 뒤 기량 떨어진다? 우리는 ‘연구 데이터’마저 없다

채윤태 한겨레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울산서 열리는 소년, 장애학생 체전 기록물로 남긴다

울산시는 이달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진행 과정을 소중한 역사 자료로 남기고자 기록물을 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록물은 화보를 포함한 통합백서, 영상물 등으로 만든다.

기록물에는 체전 준비 과정과 대회 정체성을 담은 개회식 모습 등이 담긴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모습과 대회 소감 등 생생한 현장도 기록된다.

통합백서는 200부 제작돼 울산 5개 구·군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체육회 등에 배부된다.

영상물은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요약 등 3편이 제작된다.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이달 16~19일 울산종합운동장 등 17개 경기장에서, 제25회 전국소년체전은 27~30일 울산종합운동장 4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너 낳고 부모가 행복했겠냐” 초등학생 선수에 폭언한 테니스코치 징역형

“부모님이 너를 낳게 행복했을 것 같냐”라며 초등학생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테니스 코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산하 제주스포츠클럽 전 테니스 전임코치 A(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유지됐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주스포츠클럽 테니스 전임코치로 일한 A씨는 만7세~9세 초등부 운동선수 5명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테니스 자세가 부정확하다며 3시간 동안 손들고 있게 하거나 100m 둘레의 테니스 코트장을 30~50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하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정서적 학대도 있었는데 A씨는 아동들에게 “갈아마셔버리겠다. 부모님이 너를 낳고 행복했을 것 같냐”라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달 강습비가 1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학부모 3명에게 20만원이라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했다. 죄질이 나쁘다. 감형은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OREA SWIMMING FEDERATION

수영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열린 K·S·F

[단독]평택수영연맹, 부회장 비리 신고에 제보자 계약 해지

수영 지도자 임아무개씨는 지난 3월초 자신이 서울에서 지도하던 학생들을 데리고 평택시수영연맹 수영팀에 합류했다. 기존에 훈련하던 수영장을 쓸 수가 없던 와중에 평택에서 활동하던 도아무개 지도자로부터 함께 훈련하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씨가 학부모들에게 주말 수당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임씨는 이를 평택시수영연맹과 평택시체육회에 신고했다.

돌아온 건 임씨에 대한 계약 해지였다. 평택시수영연맹은 지난 3월31일 임씨가 “무단결근하며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씨는 “부당 해고”라고 반발했다. 임씨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 시간, 장소도 없는데 무단결근은 말이 안 된다”라며 “평택시수영연맹이 불법 모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했고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당한 도아무개 지도자는 현재 평택시수영연맹 부회장이다.

평택시수영연맹은 임씨 주장을 반박했다. 연맹은 “훈련할 장소가 없는 임씨를 위해 계약을 했는데 열흘 정도 출근한 뒤 수업에 오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도 부회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는 없었다”면서도 “평소 상황을 다 보고받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평택시체육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도 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연맹과 체육회 설명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최숙현법)은 체육 지도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의무 신고’ 조항이다. 더욱이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뒤 각종 신고·조사 기능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로 일원화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건 인맥으로 엮인 지역 체육계가 내부 비리 제보를 묵살하고 은폐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때도 폭행 신고를 받은 경주시체육회가 이를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도 이런 ‘셀프 조사’를 막고 독립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신고 의무 조항이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체육계 현장에서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앞서 지난해 6월 학내 역도부 코치가 학생들을 **하키채로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한국체육대학교가 이를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하지 않고 **내부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언론 보도 뒤에야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해당 역도부 코치는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이끄는 최동호 소장 “스포츠인권, 아직 갈 길 멀어”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는 인권침해나 비리로 어려움을 겪는 운동선수나 체육인을 위한 스포츠 인권기관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 문을 연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는 한국 체육의 달라진 인권 의식을 잘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아직은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 하지만 점차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워 꽃과 열매를 맺기를 체육계는 바라고 있다.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이끌고 있는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속현 선수의 죽음은 한국스포츠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스포츠인권의 싹을 틔우는 소중한 씨앗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어디에선가는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일문일답.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어떤 단체인가요.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는 2022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스포츠 인권 상담·교육 기관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스포츠 인권 보호’이고 주된 업무는 교육 및 상담인데요. 피교육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온라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인권침해나 폭력, 불공정 피해 등을 입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업무인데요. 심리상담, 법률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및 경찰, 스포츠윤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스포츠인권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2020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최속현 선수가 남긴 마지막 문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가슴을 파고들어 왔죠.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경기도가 선례가 돼 전남스포츠인권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지난 달엔 제주도에서도 스포츠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사례 연구를 위해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선 전국의 모든 스포츠인권센터를 ‘최속현인권센터’라고 하고 싶은데요. 최속현 선수의 죽음은 한국스포츠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스포츠 인권의 싹을 틔우는 소중한 씨앗이었다고 봅니다.

-고 최속현 선수 비극 이후 스포츠계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현재 스포츠계 인권 상황은 얼마나 나아졌나요.

△최속현 선수 사건 이후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가 설립됐고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스포츠 인권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김포 FC에선 유소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장애인 선수 중 20.5%가 최근 2년 내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3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3년 동안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질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All or Nothing’식의 진단이나 평가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기에 어디에선가는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죠. 중요한 것은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성과와 비성과, 효율과 비효율, 현장과 비현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책의 성과와 운영 등을 평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 계속

-그럼에도 여전히 더 개선하게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목격하고 있는 일종의 관성인데요. 대형 사건이 터지면 늘 비슷한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언론이 먼저 사건을 극대화하죠. 그러면 여론이 악화되니까 정부는 급하게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급하게 새로운 조직, 법령 등을 만들다 보니 공동체의 철학과 비전까지 담아낼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성의 결과가 스포츠 인권에선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탄생했다고 보는데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일 수는 없습니다. 본원적인 대책은 의식의 변화로 이뤄진 새로운 스포츠 문화의 창조라고 봅니다. 스포츠 인권 정책의 지향점도 새로운 스포츠문화의 창조로 귀결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애항심, 애교심에 불타는 팬들이 가끔 경기장에서 물병을 투척했죠. 한 명이 물병을 던지면 이게 신호가 돼서 욕설, 투척 등의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군중심리입니다. 지금은 누군가 욕설이나 투척을 하면 관중들이 '하지마, 하지마'를 함께 외치죠. 이걸 자정능력인데요. 우리 스포츠팬들의 의식 수준이 이미 경기장 난동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군중심리와 자정능력의 차이가 의식과 문화인데요.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의 함양, 새로운 스포츠문화의 조성이 스포츠 인권 정책의 목표이자 비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는 2022년에 설립돼 이제 2년 차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주 업무는 말씀드린대로 교육과 상담입니다. 교육과 상담에서 경기도의 협조를 얻어 주요 체육단체, 학교 등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있는데요. 교육은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담은 접수 받은 사례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팀이나 학교에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 침해 사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가 경기도의 위탁운영 사업인가요.

△현재 시민단체인 스포츠문화연구소가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계약기간 1년짜리 위탁운영의 장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고요. 단점은 1년 수탁이다 보니 사업계획이 단기적이고 일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교육과 상담,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아직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계와 체육인을 특정화해 이들에게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의 활동 계획 및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거나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는 힘듭니다. 다만 1년 사업을 마치면서 남기고 싶은 흔적이라고 할까요. 스포츠 인권을 위한 제언 같은 것을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많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일종의 체육시민사회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분들이 만나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스포츠는 본래 신체와 정신의 밸런스를 중요시합니다. 한국 스포츠엔 한국 현대사의 압축성장이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 위주, 소수 엘리트, 효율이라는 작동 방식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압축성장 시기 가장 큰 손실은 정신세계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권을 얘기하고 새로운 스포츠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인권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스포츠 인권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직접 운동을 하시나요. 원래 경기인 출신은 아니시죠.

△스포츠를 좋아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고요. 선수 출신은 아닙니다. 스포츠기자를 하면서 스포츠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스포츠 세계를 알게 됐고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 스포츠가 단순히 즐거움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배웠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과 모순처럼 스포츠에도 발전과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자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산 뒤 선수 기량 떨어진다? 우리는 '연구 데이터'마저 없다

“일부러 결혼을 미룬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선수 시절 결혼을 했더라도, 은퇴 전에 임신을 선택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자 농구계의 '말언니'로 정규리그·플레이오프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던 한채진(39·인천 신한은행)은 지난 3월13일 마지막 경기에 앞서 팬들에게 '5월 결혼' 소식을 전했다. 한 선수는 지난 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출산 뒤에) 몸을 만들어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 주변에 남자친구와 결혼 얘길하는 선수들이 꽤 있지만, 임신·출산은 다른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량'인데, 임신·출산을 하면 당연히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선배인 전주원(51) 아산 우리은행 우리원(WON) 코치도 출산 이후 복귀해 최우수 선수(MVP)까지 차지한 사례가 있지만 “그건 전주원 코치님이 (예외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스카일라 디킨스 스미스 등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선수들이 아이를 낳고 컴백해 땀땀 코트를 누비고 있지 않냐는 말에도 “외국인은 신체적으로 우리보다 (회복하기에) 낫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 선수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이 기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엔 정설로 굳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말 그런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2016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문가 집단 회의에서는 “여성 전문체육인의 임신·출산 후 기량 회복과 관련된 근거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에선 한태경 교수(체육학과) 등 국립안동대 연구진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성 선수 임신·출산 후 훈련 및 복귀 방안 연구'에서 “임신 및 출산 후 운동 복귀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오직 일반 운동 여성들을 연구한 제한된 수의 연구만이 존재하며, 엘리트 운동선수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요룬 순고트보르겐 노르웨이 스포츠 과학대 교수(스포츠 의학) 등 북유럽 국가 학자들의 연구 조사에선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출산 후 복귀했을 때 경기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발표한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순고트보르겐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회복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육아를 지원해주는 것이 출산한 여성 전문체육인이 자신의 경기력을 유지 또는 향상하면서 계속해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Pick] 고교생 공 온몸으로 받는 초등생... 공포의 배구 훈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2859&plink=ORI&cooper=NAVER

400위권 남성 수영선수, 여성 되고 1위에 오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1614.html>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총장 “선수들 본인이 곧 국가... 韓 스포츠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 [세계초대석]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9518769?OutUrl=naver>

‘고알레’와 함께한 레크레이션과 클리닉...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소통과 화합의 장’ 됐다[SS현장]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12302?ref=naver>

충남아산, 아산시 체육지도자·선수단 2023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참여

<http://www.stoo.com/article.php?aid=87037641050>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99명 대상 스포츠인권 등 교육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11515?ref=naver>

스포츠윤리센터, LG 트윈스 구단 대상 스포츠 윤리 교육 실시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51406461879252>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인권 강사 위촉...인권침해 예방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진행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51>

‘학교폭력 논란’ 지목 한화 선수, 명예훼손 맞대응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2_0002300991&cID=10502&pID=105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